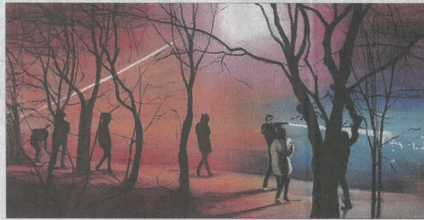


# 찰나 좇아 찰칵! 찰칵! 평범한 일상, 예~술이네

August 9, 2021 | 이순녀 기자

Page 1 of 1

## 찰나 좇아 찰칵! 찰칵! 평범한 일상, 예~술이네



새해 전야에 공원에서 불꽃놀이하는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을 재구성해 유희로 그린 '공원의 새 밤 10'(2021). 국제갤러리 제공

### 박진아 부산 개인전 '휴먼 라이트'

사진 여러 장 조합해 캔버스에 옮겨 불꽃·전등 등 인공조명 반복해 표현 행위 몰입한 인물, 호기심·정취 불러

박진아(사진) 작가의 회화는 동적이다. 화폭 위 인물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 공원을 준비하는 연주자, 작품을 포장하는 갤러리 직원, 야외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는 인부, 새해 전야에 폭죽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영상처럼 순간 포착돼 관객 앞에 펼쳐진다. 일어난, 놓이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에 몰입한 이들의 뒷모습 또는 옆 모습을 담은 화면은 묘한 호기심과 아련한 정취를 불러일으킨다.

지난 6일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막한 박진아 개인전 '휴먼 라이트'는 "흐르는 시간 속 찰나를 그리고 싶다"는 작가의 작업의도를 잘 보여 주는 회화 17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이나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전환의 순간에 관심이 많다"면서 "평범한 일상의 동작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우연성과 순간성은 작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박진아는 이를 위해 스냅 사진을 활용한다. 공연장, 전시장, 영화 촬영장 등 특정한 배경 장소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 아닌가 오해하기 쉬우나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다른 일로 방문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포착한 것들이다. 촬영 타이밍도 특별한 동작을 하거나 의미



있는 때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순간성이 드러나는 일상의 제스처"가 그가 원하는 장면이다. 때문에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있거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

사진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건 아니다. 사진 여러 장을 조합해 구도를 만든다. 작가는 이런 작업 방식에 대해 "카메라는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라면서 "사진이 아니었다면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 일상의 찰나들이 회화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시간성과 물질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시 제목 '휴먼 라이트'는 인간이 만든 빛, 인공조명을 말한다. 밤 장면이나 공연장, 전시장처럼 실내 공간을 주요 소재로 그리다 보니 인공조명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된 데서 제목을 가져왔다. '공원의 새 밤', '도시 서퍼', '무대 정리' 연작을 비롯해 걸린 작품마다 불꽃, 전등 같은 다양한 조명이 눈부시게 혹은 은은하게 빛을 발한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그림은 2007년작 '문탠(moontan) 04'다. 한밤 공원에서 달맞이 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인데 카메라 플래시 효과 때문에 인물들은 선명하고, 하늘은 달빛 한 점 없이 새까맣다. "스냅 사진을 조합해 회화로 옮기는 방식을 처음 시도한 작품이자 인공조명에 대한 영감을 준 작품"이라는 작가는 "모든 그림마다 나의 이야기가 있지만 관객이 각자 자기 이야기로 재구성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9월 12일까지.

부산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